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2012년 전세계 기독교인 투옥, 박해 증가 전망



지난해 12월 25일 나이지리아 마달라에 있는 성 테레사성당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해 불타고 있는 차량들. 성탄절인 이날 5개의 폭탄이 터졌고 이로 인해 30여 명이 숨졌다.

릴리스 인터내셔널, ‘나이지리아를 올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지목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이사야60:2)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투옥과 박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선교분석기관인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 RI)은 지난 해 말 발간한 정기간행물에 실린 전망 기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몇몇 국가에 대한 상황과 전망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 같이 내다본 것이다.

우선 최악의 박해국가임이 분명한 북한인 경우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과정에 놓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체제불안정 상황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밖에 없고, 단속과 적대감표출, 그리고 정치범수용소로 투옥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중국의 경우, 기독교에 대한 단속과 탄압의 강도가 새해에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국 역시 2012년은 정권교체의 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신앙의 자유 지수는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헤난성, 안휘성, 산둥성, 그리고 수도인 베이징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정치범으로 몰려 감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슬람권 힌두권 등 개종 자체를 죄악으로 보는 지역들의

2012년의 전망 역시 여전하다.

이란에서는 최고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의 확산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도 기독교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전화도청, 가족간 감시 및 신고 촉구, 직장해고, 구속, 구타는 물론 살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모로코나 알제리도 최근 몇 개월 동안 악화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기독교 신앙행위를 이슬람 신앙을 모독하고 교란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고 동원하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의 신설과 성장을 막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급진 이슬람세력이 확산되고 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신성모독범의 존재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공공연하게 살해하는 나라이다. 한마디로 박해의 양상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나라이다.

올해 가장 심각하게 눈여겨 볼 나라는 나이지리아이다. 이미 지난 성탄절을 전후해서 여러 건의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보코하람은 자칭 나이지리아의 교회는 물론 아프리카의 몇 안 되는 민주국가인 나이지리아의 민주주의마저도 크게 훼손시킬 존재이다. RI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 중북부에서는 5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피살되었고, 4000명 가량의 기독교인 가족이 불타고 파괴되었다.

인도의 힌두교 원리주의 단체인 VHP(세계힌두협의회)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해 힌두교를 버리는 사람들의 목을 베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이 채택될

리는 없지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 국가들의 전망도 좋지 않다. 미얀마는 국가를 하나로 묶어 정권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불교를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부상시키고, 소수종족의 종족적, 종교적 반발을 누르려 할 것이다(출처:매일선교소식).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요한계시록22:3-5)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고난도 함께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것처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박해와 위협 앞에 희생되고, 2012년에는 기독교인 박해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의 영광의 때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북한과 중국,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중동 이란과 아프리카 땅 구석구석에서 주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자기 목숨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증인들을 통해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세세토록 왕 노릇 하는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 위에 나타나 자기를 저주하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생명을 내어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으로 온 땅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24.365 제공]

▶ 관련기사 3편

INSIDE



▶ 기획
- 아웃리치(비전트립, 땅밋기 기도원정)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 인터뷰
- 주님의 기록한 신부
구영희 선교사(대학로기다리는예배)



김용의 선교사 컬럼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오직 부끄러움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1:18, 22-24)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다윗도 좋아하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은 조상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이 모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존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된 인간의 모순, 인간 내면의 본질 때문입니다.

‘에서의 통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나이답고, 매력적이며 통 큰 남자였던 에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서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이 아 곱에게 넘어간 때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

은 받고 싶었지만, 본질적인 장자의 명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먹게 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인기, 명예, 부, 성공과 같은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는 ‘팔죽 한 그릇’ 만큼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지 않던 에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길은 싫어하면서도 복음의 축복은 원하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죄 곧 나, 나 곧 죄인.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심판 아래 들어가야 하는 십자가 밖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 역사를 동원해서 차근차근 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머아마한지를 말해줍니다. 스스로 언약하시고 지키시며 성취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17)

만약 실패로 인해 고통중이라고해도 나의 실패로 끝을 삼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없이는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혹 내가 의지했던 것이 빨리 무너지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는 어려움에 부딪치고, 사람의 오해 한번 받으면 털썩 주저앉는 연합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를 붙드시는 주님이 완전하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 1:22)

주님은 인생을 두시고 목적하신 그분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연합의 주체이신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연합하기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생명의 떡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위대’

러시아 / 침례교인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딤후 2:7,8

세상은 일찍이 그런 시위를 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폭력적이다. 구호를 외치고 현판과 깃발을 흔들고 심지어 돌을 던진다. 그러나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사 마당에 집결한 500명의 소비에트 침례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시위자들과 달리 구호나 요구사항을 외치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 있었다. 그리고 게오르그 빈스와 게다나 크루츠코프가 대표로 소비에트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침례교의 공식적 승인, 교회에 대한 탄압 중지, 투옥된 신자들의 석방,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자유의 보장’이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군인들과 KGB(국가보안위원회)요원들이 그 평화로운 시위대를 포위하였고, 오후 1시 즈음에는 버스로 출구를 봉쇄하고 시위대를 무차별로 구타한 뒤에 버스에 강제로 태웠다. 시위대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 팔짱을 끼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찬양의 음성이 그들을 구타하는 군인들의 쇠소리를 압도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수많은 구경꾼들이 500명의 침례교인들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벌어졌다. 그들은 곧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다. 공산당은 그 평화로운 항의자들의 탄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기독교를 하나의 운동으로 변모시키는 사람들은 순종과 폭력을 혼동하는 모험에 뛰어 들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것에 항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소비에트의 침례교인들처럼 평화를 도모해야지 위해(危害)를 촉발하면 안된다.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위와 결단의 본을 남긴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찾아오는 모든 결과들을 의연하게 감내한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부르고 계신가? 당신에게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아주 낮은 곳이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인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세례 터(John the Baptist Spring). 요단강으로 이어져 해수면보다 400미터 정도 낮은 염해로 연결되는 길목에서 주님은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단에서 흘러 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마주한 요르단에 속해 있는 곳이다. 현재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물도, 교회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세례 터임을 알리는 비석과 교회 터가 전부이다.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와 하나 되신 이 세례의 터를 기억하며 매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터 위에서 걸어야 함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 6:4)

- 자료제공 : WMM, 송기석

십자가만 자랑하며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 나는 부르심 받은 곳을 ‘소망의 땅’이라 부른다”

이 글은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지난 2011년 12월 13~16일까지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1989년 1월에 선교사로 파송 받은 후 한나호(號)를 타고 10년을 사역했다. 그 후 배보다도 더 흔들리는 땅 A국의 B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장테러단체의 본거지. 현지어를 전혀 할 수 없는 기간, 언어를 배우고 잠잠히 기다리며 중보하는 시간은 답답했다. 하지만 그 기간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맘껏 예배할 수 없는 땅에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현지어 한 마디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맘껏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기간을 통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배웠다. 그러던 중 내 주변에서 ‘아멘’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군부대에서 초청이 왔다. 그 곳에 교회가 있었다. 미군들은 예배하는 시간 내내 총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해서 계속 울었다.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 삶 속에서 아픔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동이다. 처절한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감격이 주어진다.

를 지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갈 2:20).

세 번째, 선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최종목적이다. 부르시고 ‘나 같이 살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다. 약속이 무엇인가? 창18장 18절에 나온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땅에 알카에다가 있다면 나는 5000명을 훈련시켜서 이 땅을 뒤집겠다고 외치고 다녔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이 부르실 뿐 아니라, 선교완성도 주님이 한다고 하신다. 단, 우리에게 ‘나처럼 살라’고 하신다.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다.

한 번은 우리 건물에 전쟁 영화에 나오는 듯한 사건이 벌어졌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쏟아졌다. 3일 동안 지하에 갇혀 말씀기도만 했다. ‘주님도 이 고난을 당하셨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네?’ 모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말씀으로 담대히 서게 해주시는 시간이었다. 선교는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삶만 살기만 하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장소 이동만 하면 된다. 자격지심은 내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그 곳을 소망의 땅이라고 부른다.

“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장소 이동만
하면 된다.

자격지심은 내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삶이 선교다(창18:19)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 요소인 하나님의 선택, 거룩, 선교가 담겨 있다. 많은 선교단체를 안다. 그러나 선택과 선교를 이어주는 거룩에 대해 강조하는 선교단체를 많이 보지 못했다.

첫 번째, 선택. 누구의 선택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에게 취소할 권한이 없다.

두 번째, 거룩한 삶.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나같이 살라’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삶이 예배다(롬12:1)

우리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 제사에서 살아있는 제물이란 없다. 한나호(號)를 타고 사역하면서 폭풍을 만나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 죄 장아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기 몸을 그냥 씻어 내고 거룩하게 다듬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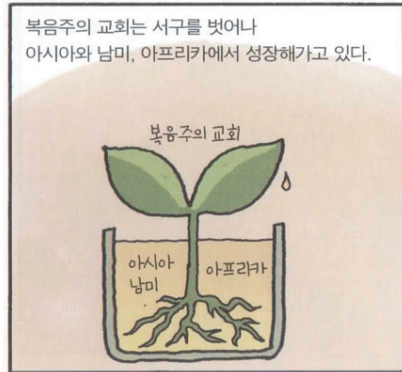
OOO 선교사

1면에 이어 - 세계는 어떤 곳인가?

지구촌을 한눈에!



면적 1억3494만km²
인구 69억800만
도시화 51%
종족 1만6350개 (여호수아 프로젝트 수치)
종교 기독교 32.3% 이슬람교 22.9% 힌두교 13.9% 무종교 13.6% 불교 6.9% 동양종교 5.9% 종족종교 3.0% 기타 0.9%
<출처: 세계기도정보 2010>



선교브리핑

나이지리아 북부 기독교인, 대거 탈출

당장 거주할 간이 거주시설과 의복, 음식, 의약품 등 필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으로부터 도시를 떠나려는 최후 통첩을 받은 나이지리아 북부 마이두구리의 기독교인들이 집과 마을을 버리고 탈출행렬에 합류하고 있다고 최근 매일선교소식이 전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이들의 집중 공격으로 30여 명의 기독교인이 숨진 마이두구리는 보코하람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현재 이 지역을 떠나는 행렬은 1000명 단위를 넘어 1만 명 단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를 위한 자원 마련이 시급하며, 당장 거주할 간이 거주시설, 의복, 음식, 의약품 등이 잘 조달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보코하람은 지난 달 20일 카노주에서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160명의 사망자를 발



생시킨데 이어 22일 오전에도 바우치주의 두 곳의 교회에 대해 폭탄테러를 저질렀고, 20일의 연쇄테러의 사망자들은 대부분 경찰과 군인들이며 사망자의 수는 대략 2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터키, 장기비자 없이 90일 이상 체류 불가

90일 체류시, 90일 이내 재입국 불허

터키 정부는 장기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90일(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비자 시스템을 개정,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또 90일간 체류한 외국인이 터키 출국 이후 90일간 재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비자 체류 기간 만료 이후 인근 국가로 일시적인 비자유행을 다녀오는 것으

로는 비자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비자발급 체계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쟁점조약과 동일한 방식이다. 쟁점조약이란 비자없이 쟁점국(유럽국가 25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쟁점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중 최장 90일로 규정하는 조약이다.

한편, 소식통은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이같은 비자관련 규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기획 | 아웃리치(비전트립, 땅밋기 기도원정)

열방으로의 초대 ...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5주간의 선교·기도훈련, 비전트립과 땅밋기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강의실에서 배운 진리를 선교현장에서 실제되는 경험 통해 '월드 크리스천' 양성

겨울이나 여름철.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강의실에서 배운 선교현장과 열방을 품은 기도가 열방의 땅 끝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아웃리치(Out Reach) 기간이다. 최근 한 선교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훈련학교 훈련생들로 구성된 '네팔'에 아웃리치를 다녀온 한 팀의 서기록을 재구성하여 팀 구성과 준비기간, 정담여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 팀구성과 준비 = 15주간의 강의 기간 중 비전트립과 땅밋기 기도원정 대상국이 결정된다. 훈련생들은 먼저 자신이 기도하고 결정한 국가를 제출한다. 대상국이 1지망 나라로 선정되지 않아도 부르신 하나님과 허락하신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팀이 구성되면 우선 팀장과 헬퍼, 아웃리치 기간 중의 직임을 나누고, 몇 차례의 팀 준비모임을 갖는다. 이때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주목하는 시간을 가진다.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팀 모임 기간을 갖는다. 출국 직전 대상국의 정세의 사회적 문제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지거나 입국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에도 팀은 한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재를 경험하기도 한다.

▶ 믿음 재정과 준비과정 =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팀의 모든 필요(물품, 비행기 티켓비, 현장 체제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구한다. 일인당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책정되지만, 주님이 허락하는 만큼 부담한다. 많이 주시는 자는 많이, 적게 허락되는 자는 그만큼 부담한다.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믿음재정이다. 그리고 허락하시는 모든 통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



로들을 통하여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

▶ 출국 하루 전 = 2011년 12월 21일 오후 9시. 네팔로 부르신 '아름다운소식'팀의 출국 전날 마지막 팀모임을 가졌다. 가져갈 물품을 점검하고 마지막 짐을 싸기 전, 먼저 말씀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다. 중보기도 학교 땅밋기 기도원정을 위한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서를 통해 곧 밟게 될 네팔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했다. 다음은 차례에 따라 허락된 말씀 이사야 35장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한 한 자매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제목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고 누리고 오고 싶다.”

▶ 출국일, 공항 스케치 = 2011년 12월 22일 오전 7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진지하면서도 상기된 표정의 네팔팀 '아름다운 소식팀'이 모여 마지막 재정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전화를 거는 사람, 조용히 앉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 등. 모든 아웃리치 팀들은 그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부르신 주님이 끝까지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된다. 조형진 팀장이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나누어준 고백.

“땅밋기를 준비하는 동안 팀원 전체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출국 3일전 다른 팀의 재정이 안 채워졌다는 소식에 팀의 체제비가 안 채워졌지만,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플로잉을 했다. 그 이후에 주님은 모든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출발 전 공항에서 또 한번 플로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주 안에서 모든 팀이 한 몸인 것에 대해 실재되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했다. 공항에 도착하여 팀 체제비까지 넘치도록 채우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 모두의 믿음에 신실히 응답하셨다.”

▶ 현지 도착 = 2011년 12월 22일 오후 9시(현지시각). 홍콩을 경유하여 드디어 네

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 팀은 현장 선교사님의 만남을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일정을 보내게 된다. 네팔 땅에서 허락하신 사역은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한 현지교회와의 연합기도.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산족 마을 교회 방문을 통해 예배와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 또한 실제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땅밋기를 통해 힌두교 사상에 물든 그 땅의 문화와 사람들, 라마 불교사원 등의 유적지를 밟으며 그 땅의 영적 상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지금도 포기치 않으시고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부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현장 사역을 통한 팀원들의 고백.

“게스트 하우스 숙소에서 우연히 보게 된 달력. 한인교회 달력이었다. 깜짝놀랐다. 바로 그 달 달력에 우리 팀이 받은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적혀있었다. 신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를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길 주님을 찬양한다.”

“불 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산 속 깊은 마을의 작은 교회를 통해 주님은 그분의 열심을 드러내시며 열방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고 계셨다. 주님을 찬양한다!”

▶ 아웃리치를 마치고 = 현장에서의 모든 일

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 한 후 팀들은 사후 모임을 가지고 서기록, 사진과 영상을 통해 돌아온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각자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록한 에세이를 함께 나눴다. 다음은 땅밋기 기도원정 에세이 중 일부.

“15주간 배운 복음의 내용들이 머리로서 이해라면 땅밋기는 영혼의 깊은데서 아멘으로 동의되어 나오는 복음이 실제 되는 시간이었다.”

“지독한 향 냄새, 소풍과 수많은 비둘기떼로 인한 먼지, 소음 등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돈을 넣고 올라가 이마에 붉은 것을 바르고 종을 치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분주히 오갔다. 이런 행위가 일상의 삶이 되어 버린 듯한 그들을 보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영혼과 밟는 땅이 주님이 이미 만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 수년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실 주님을 기대, 신뢰한다”

“50줄에 들어선 이전 너무 늦어버린 것과도 같은, 말라버린 나뭇가지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이 참고 나를 멸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마침내 하셨습니다. 나에게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 내시고 이제 남은 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기로 작정하는 나로 만들어 버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 관련기사 6면

훈련마치고 수백여명 현장 선교사로 사역중

순회선교단 복음선교관학교, 중보기도학교 15주훈련, 3주 아웃리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순회선교단의 복음선교관학교와 중보기도학교는 현재 국내와 미주지역을 포함해 총 9개 학교가 열리고 있다.

일 년에 두 차례 15주간의 강의, 그리고 2~3주간의 아웃리치(비전트립, 땅밋기 기도원정)를 통해 강의를 통해 들은 진리가 실제의 삶에 적용되는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아웃리치를 통해서 는 선교지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배와 사역, 기도를 통해 품게 된다.

아웃리치 팀들은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정신을 기반으로 타문화권의 각 지역으로 가서 주님의 교회와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부요함을 누리고 복음과 기도로 섬기게 된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학교를 마치고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나눔&나눔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한때 불교에 귀의 ... 주님 은혜로 극적으로 예수 믿고 전도자의 삶

“전도안하면 못살까? 낙담하고 돌아서면 십자가가 보이더군요”

- 주님의 거룩한 신부
구영희 선교사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

아웃리치를 통해 열방을 다녀온 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수소문했다. 주님이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 출신으로 지금은 겸손하게 선교훈련과 기도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였다. 최근 인도로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사후모임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걸음에 참여했다. 팀원 중 한 분이 사후(事後)모임이 아니라 사후(死後)모임 같다고 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설명될 수 있는' 화기에애한 모임을 3시간이나 넘게 함께 지켜본 이후 인터뷰가 시작됐다.

-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어요. 복음학교를 경험한 후 복음선교관학교와 중보기도학교를 차례대로 하고, 최근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인도에 아웃리치를 다녀왔어요. 가족으로는 딸과 사위, 그리고 예쁜 손주가 있어요.”

- 선교사로서 다시 훈련생이 돼 선교와 기도훈련을 받으셨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기초가 전혀 없이 선교지에 나갔어요. 30대에 목회를 시작하여 50대 초까지 이곳저곳에서 개척교회를 섬겼고, 50대 후반쯤 러시아의 한 교회에서 초청받아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후 부르심이 있어 헌신하게 되었어요. 한 4년 정도 되었네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가 보니 한국교회가 이러니깐 현지인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려만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볼 때 망한 것이 은혜죠. 아무 터 없이 시작한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말씀에 잘 서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선 게 없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 이번 아웃리치 기간중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저를 십자가에 넘기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누구 밑에 있기 싫어하고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저를 보게 된 거죠. 이전에 장사하고, 혼자 교회도 개척한 경험으로 교만함이 있었어요. 또 경상도 출신인 저는 친근감의 표시로 ‘니 밥먹었어?’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젊은 자매 한 분이 이것을 받기 어려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저 자매가 저렇게 어려워할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앞에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어요.”

- 십지만은 않았을 것 같군요. 이후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런데 주님은 자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태도로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일정 중 5~6시간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가다보니 노상에서 용변도 봐야하고, 마음은 심란하죠. 그러니 보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죠. 그런데 주님이 저의 입술에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라고 마음으로 받았죠. 그렇게 도착했는데 주님이 그 땅에 심어놓으신 많은 증인들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님이 가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깨달아졌고,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내 형제요,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들도 나처럼 믿는 대상만 바뀌면 되겠구나. 불교신자였던 저를 바꾸셨는데 저들은 못 바꾸실까’ 그리고 이미 이곳에 등대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으셨나 봐요?

“네. 제가 불교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는 곳이 경상도 해안지역이었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인생의 파도도 참 많았는데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5개월 만에 생이별을 하고, 그 충격으로 어린 딸과 함께 절에 들어가 4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불교 법과 주역을 배우고, 또 참선하고 고행하면 성불이 된다는 생각에 더러운 일 힘든 일 마다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했었죠. 그런데 외로움과



공허함은 늘 그대로였어요. 그때쯤 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 부모님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줬던 것 같아요.”

- 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셨군요.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30대 초쯤 절에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 계기로 다시 앞날을 생각하게 되었죠. 캄캄하더군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도 나가야 한다니 막막했죠. 그러다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어느 날 집에 심방 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뵈어요.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도 저렇게 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 교회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도 동생들이 찾아와 믿어보라고 전도하면 뒤에도 소금을 뿌리곤 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저도 나중에는 전도하다가 소금에 맞고, 한 겨울에 물세례도 받곤 했어요. 당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니 아무 말 못 해요(웃음).”

-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겠지요?

“절에서 나와 부모님 도움으로 시골에서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나이트클럽을 차렸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했던 건 여전히 저에게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밤새 일하고 새벽기도는 꼬박 나가곤 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제게 ‘깨어있으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밤에 일하고 자야 하는데 왜 자꾸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성경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하던 중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했다는 생각에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 한 채 얻어 교회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재정이 없으니 궁핍하게 살게 되었고, 교회까지 4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매일

새벽마다 걸어 다녀야 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동생들의 권유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 길을 걷게 된 거예요.”

- 부르심을 따라 걸으면서 후회 될 때는 없었나요?

“어머니는 저보고 예수 믿고 망했다고 늘 말하곤 하셨어요. 물론 육적으로는 망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그게 기뻛죠. 전도사가 된 거 하나만으로도 구름을 나는 것 같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주님이 “내가 네 남편이다”라는 마음 주셔서 그 감격에 감사하며 보냈어요. 세상은 날 채워주지 못하지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죠. 물론 어려움도 많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점집이나 그런 곳을 찾아가 축호전도를 했는데요. 미친 짓한다고, 2층에서 찬물 뿌리고, 소금에 맞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거 안하면 못살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얻어먹고 산 적도 없는데.’ 생각이 들어 돌아서면 벽에 십자가가 보이더군요. 그럼 다시 ‘내 까짓게 뭐데... 맞아도 안 죽지.’라며 다른 집으로 가서 전도를 하곤 했어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일단 뿌리기로 마음먹은 후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넸어요.”

- 아웃리치 얘기를 더 듣지 못해 아쉽네요. 혹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 인도에 있는 불교의 발원지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보리수 근처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주님이 영혼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저녁에 팔이 아플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며 기도했어요. 십자가만 알면 저들도 돌아올 텐데... 주님 사랑 알면 주님께로 나아올 텐데...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저와 같은 이들을 보며 주님이 일하시면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에 그랬어요.”

- 기도제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 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사지(死地)같은 곳이라도 갈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들만 계속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인도 아웃리치 중 현지 아이들이 한국의 전통 놀이인 닭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아웃리치(땅밭기 기도원정) 후기

네팔 산족마을 현지인들과 함께 기도 ... 그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네팔 땅밭기 기도원정대 '아름다운소식'팀 손신해 자매

총체적 복음 앞에 서게 됐다. 이 복음이 나 하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 알아졌다. 그리고 아멘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마음으로는 도무지 품어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땅밭기 기도원정 기간 느헤미야52기도의 기도시간은 잘 파수했다. 그러나 초반 무렵의 기도는 정보를 파악하고 기도문을 읽는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 '아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 '생명'이 아니라 결론에 부딪히게 되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지식이 내 생명에까지 아멘 되어졌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다시 복음 앞에> 집회에서 받은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열방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왜 내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며, 왜 그것이 마땅한가?’ 등의 질문이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또 그 상태가 바로 나의 실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해 답답함만 더해져 갔고,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네팔에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주님은 ‘말씀기도’와 ‘복음과 영적전쟁’ 기도책자로 진행되는 느헤미야 52기도 시간을 통해 내게 소속을 분명히 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셨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이라는 것’과 ‘공익근무요원과 군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엔 ‘공익요원’이 존재하는가? ‘제대’가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살고 있었음을 보게 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 내 생활에 얽매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었음을 말이다. 그리고 전쟁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 제대도 아닌 소집해제를 해버린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잠깐 과병을 나간 군사도 아닌 공익근무요원이 바로 나였음을 보게 하셨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닌 나의 마음에 확 부어졌다. 내가 그들을 대신해 먼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내게 은혜 입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한다 하시며 부르셨고, 열방의 모든 영혼을 나와 동일하게 사랑한다 하시며 주님이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셨다.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끝자리인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네팔에서 주님의 교회가 복음과 기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하셨다. 현지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과 영적전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수하며 간절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용사들을 보게 하셨다. 산족마을에 있는 갈보리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연속·연쇄·연합 기도가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 까지 이미 울려지고 있었음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셨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내가 했던 고백을 스스로,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이다.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중보기도의 자리로,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만 기대한다!

주님! 우리의 기도로 열방을 구원하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이며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

“모국 교회의 금식과 기도는 선교지의 영적공급원이다.”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고전 명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모든 선교의 성공의 열쇠는 기도다. 그 열쇠는 모국 교회의 손에 달려 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국 교회는 커다란 영적 공급원이며, 전쟁물자며, 이 무서운 최후의 싸움에서 얻을 승리의 보장이자다.

모국에서의 미약한 기도는 외지에서 미약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기도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선교의 일이 모든 난관과 장애를 뚫고 나가게 할 수 있게 한다. 기도 없는 많은 돈은 외지의 철혈 같은 암흑과 죄와 사악의 면전에 도움이 안 되며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변창은 적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강하며 잔인하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국을 온전히 소유케 하며, 그의 유산으로 이교도들을 그에게로 이끌며, 땅 끝까지 그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대한 영적 힘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의 도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음부의 모든 권세보다 더 강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주시지 않으신다.

마침내 말세에 실현되는 복음화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 승리의 날이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기도는 각 시대가 강하고 전형적이며 대표적이 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오, 거대한 기도의 물결이 이 교회를 덮쳐서 교회가 이 땅의 핍절한 추수밭에 추수할 일꾼들의 큰 군대를 보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기도의 본질(1982), E. M. 바운즈, 생명의말씀사

사진으로 보는 땅밭기 기도원정

- 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② 보오드넷트라는 사리탑을 네팔 불교인들이 돌고 있는 모습
- ③ 암환자들을 만나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습
- ④ 익살스런 표정의 네팔 아이들. 사진기를 갖다대자 곧 포즈를 취한다.



2012년 2월의「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 ⇨ 7주차 (2월13일-18일)
동산의샘교회-느헤미야 김은경
동해예일교회-느헤미야 김지환
열방의빛교회-느헤미야 김형근
푸른언덕교회-느헤미야 박영주
준향감리교회-느헤미야 이기현

- ⇨ 8주차 (2월20일-25일)
예수생명교회-느헤미야 맹기원
열방선교센터-느헤미야 강옥주
대구풍성한샘교회-느헤미야 이해락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뉴욕시의 공립학교 예배 금지 조치에 뉴욕교회를 비롯해 메다문화권 교회 기독교인들이 참여, 예배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뉴욕시, 2월부터 공립학교에서 교회 용도 사용금지

뉴욕교회, 반대 기도회 및 가두행진 ...“뉴욕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상황”시사

2월 12일까지 미국 뉴욕의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나가야 하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기도회와 행진이 지난달 29일 브루클린과 맨하탄에서 열렸다고 미(美)크리스찬투데이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시가행진에 1만7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릴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뉴욕시청까지 행진했다. 이에 앞서 뉴욕교회협의회는 27일 오후 뉴욕시청을 방문하고 교협이 그동안 서명을 받은 4000명과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실 6000명 등 1만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뉴욕시 리더십센터는 이번 뉴욕시의 공립학교 예배금지 명령이 동성결혼 허용 등의 상황과 함께 뉴욕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예배장소를 퇴거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이들 공립학교가 다른 기관들에 장소를 대여하면서 왜 도시 교회들의 예배를 금지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브루스의 한 지역 중학교의 교내 공간을 사용하려 했던 교회측 법률전문가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조항이 공공 시설물이 종교적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오해되

고 있다”며 “학교에서 종교적 모임을 한다고 해서 학교가 종교적 건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다른 순회법원은 텍사스주의 한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기도를 하는 행위와 함께 ‘기도’, ‘기원’, ‘축도’,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낱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주의 메디나 밸리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교별사 순서를 담당했던 안젤라 힐덴브란드 학생이 기도와 함께 교별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복음임을 선포하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지난달 구정 기간, 이주민 대상 복음집회에서 태국이주민의 고백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고 보니 사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등으로 가득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수년째 용인 근처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로 삶을 살고 있던 태국인 쑤쯔 형제는 최근 복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은 아니었다.

“그렇게 늘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다.”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선포했을 때 저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물러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구정 기간 동안 태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박3일간의 복음집회를 통해 태국인 형제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한국인 선교사들과 참석한 태국이주민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지난 몇 년간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십자가복음앞에서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 집회를 주관한 티엔알미션(대표 박종



한국에서 복음을 만난 태국 이주민들이 기도모임에서 찬양하는 모습

진 선교사)의 이주민사역 담당 안승용 선교사는 “이주민들이 기대 이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복음은 생명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집회가 이번만이 아닌 명절 때마다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은혜를 전했다.

한편, 이주민 복음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달 티엔알미션이 주관한 올레한글학교를 참여한 태국 형제 자매들로 지난 6개월간 한글을 배우고, 서로간의 마음을 나누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몇 년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속적인 양육을 받으며 오랜 믿음의 교제가 거둔 결실이라고 안 선교사는 덧붙였다.

서울지역선교·기도 학교 월,토요일 신설운영

순회선교단, 수도권 4개 지부가 학교 담당

순회선교단(대표 김용의선교사)은 2012년 3월부터 진행될 서울 복음선교관학교와 중보기도학교에 각각 토요일과 월요일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선교팀과 기도팀 2팀이 맡던 학교운영을, 4개지부에서 감당하기로 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복음선교관학교는 월요일, 중보기도학교는 토요일로 제한받던 수강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번 개편으로 시행되는 ▶복음선교관학교 월요일은 강동지부(010-9447-4641), 토요일은 강남지부(010-2042-4641)가 담당하며, ▶중보기도학교 월요일은 강북지부(010-9443-4641)가, 토요일은 강서지부(010-2037-4641)가 맡는다.

2011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실황 DVD 등장

2월중 배포, 예약주문 접수중



2011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실황을 담은 DVD가 곧 출시된다. 작년 12월 13일부터 16까지 4000여명의 복음기도동맹군들이 모여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목사)에서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를 통해 부여진 은혜의 현장을 생생한 고화질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복음기도동맹이 주관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한 이번 영상물은 김용의 선교사, 유기성 목사, 유병국 선교사 등 15명의 메시지와 전체스케치를 담아 9장의 DVD로 제작됐다. 현재 이 영상물은 복음과 기도미디어 사이트(www.gnnmedia.org)에서 주문 접수 중이며 가격은 3만3000원 (택배비 2,500원 별도)이다. 자세한 문의는 ☎ 070-7417-0408~9, 010-4612-0410, 010-6326-4641, 이메일 gnnmedia@gnmedia.org로 하면 된다.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집 Ver.5 출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 Ver.5(다섯번째) 기도정보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기도정보집은 기도24365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입니다.

6종 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음의 영광
2.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
3.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세대
4. 복음에 반역하는 죄
5.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이주민)
6. 복음과 영적전쟁

각 권 구입시 6,000원이며, 세트 구입시는 30,000원(각 권 5,000원)입니다.

20,000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2,500원) 무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구입 및 문의 : 복음과기도미디어

☎ 070-7417-0408~9, 010-4612-0410 gnnmedia@gnmedia.org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연합집회를 마치고

“최악의 식사시간과 잠자리 ... 그러나 그날의 예배를 떠올리며 감격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뭔가에 취해 몽롱합니다. 사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집회(2011년 12월13~16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집회, 편집자주)에 참석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당일부터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두려움을 넘어 집회에 온 것이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와글거리는 낯선 많은 사람들과 군대에서나 사용될 법한 용어와 명령조의 말들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최악이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 말이 국밥이지... 미역국에 밥한 주걱 맡아 주었습니다. 소대장을 잃어버려서 김치도 없이(김치가 소대장에게만 배급되었기에) 국밥만 한 그릇 덩그러니 놓고 먹자니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노숙자도 아니고, 집에 갈까 보

다.’ 정말 심란해서 눈물이 찝끔 나왔습니다.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잠자리는 모자란 잠으로 더 불편해졌고 끼니는 여전히 종이 그릇에 담긴 국밥 하나. 휴식 시간이라지만 편히 앉아 있을 만한 곳도 없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땀 냄새까지 폴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 하나 그런 것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려서 먹고 자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저도 어느새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회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를 꼽으라면 그들과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예배



속에 저를 불러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네 생물이 쉬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24장로가 머리에서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먹거리. 깨끗하고 안락한 생활. 좋아야 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때로 포로수용소 같고 때론 노숙자 처소 같던 곳에서 지냈던 3박 4일간의 생활이 그립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누리지도 못해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열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그 때가 그립습니다. 그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부디 그 감격의 시간들이 한 편의 추억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홍경주 권사(선한목자교회)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블랙(Black)』

“넌 내 마지막 희망이야!” 어디선가 들던 목소리...

어둠이 희망이 되는 순간, 그분이 함께 할 때

“저의 세상은 남들과 다릅니다. 소리는 침묵이 되고 빛은 어둠이 되는 곳, 그게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죠. 그 세상에 딱 맞는 이름. 제 이름은 블랙입니다”

이 독백으로 영화 ‘블랙’은 시작된다. 주인공 미셸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다. 그녀의 집은 부유했지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미셸 때문에 그의 가족은 슬픔의 나날을 보낸다. 더 이상 그녀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의 아버지는 그녀를 정신치체 요양원에 보낼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런 그녀에게 사하이라는 한 선생님이 마법같이 등장하고 그녀에게 말과 소리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수화로 가르치기 시작한다. 포기를 모르는 그의 굳은 믿음과 노력은 끝내 짐승과도 같았던 그녀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고, 결국 일반인이 다니는 대학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하이’ 선생님은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되고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녀 곁을 떠난다. ‘미셸’은 ‘사하이’ 선생님을 애타게 수소문하는 한편, 그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영화 ‘블랙’은 2005년에 개봉한 인도 영화이다. 헬렌 켈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어찌 보면 진부하고 우리가 흔히 보았던 교훈적인 영화 중 한 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영화를 주의 깊게 본다면 이 한편의 영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영화는 ‘빛’에 대한 영화이다. 영화 내내 빛(Light)이라는 말과 은유가 곳곳에 등장한다. 또한 이 영화는 ‘물’에 관한 영화이다. 주인공 미셸이 가장 처음 배운 말이 물(water)이라는 단어이며 그 말을 통해 세상에 눈뜨는, 빛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던 물을 통해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빛일까? 왜 물일까? 미셸의 대사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어릴 적에, 전 항상 뭔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은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단순히 미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는 곳 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다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짐승처럼 자기 욕구에만 충실히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철저히 어둠 속에 갇혀 헤매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다.



그때 사하이 선생님이 그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일어나. 미셸. 넌 반드시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갈거야. 네가 살아온 이 어둠을... 빛 속으로 들어오렴! 미셸, 빛, 빛 말이야. 그래! 그렇지!”

사하이 선생님은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전 인생을 미셸에게 바친다. “넌 내 마지막 희망이야. 미셸.” 이 말... 어디서 많이 들던 목소리가 아닌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 아닌가? 어둠 가운데 있던 미셸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의 모습. 무수한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포기

하지 않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이 영화 속에 그려 낸 것 같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 우리를 어떤 어둠에서 건져내었는지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영화에서 미셸은 짐승 같은 자신을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고 대해준 사하이 선생님을 통해 비로소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녀도 그러한 존재가 된다.

끝부분에서 미셸은 졸업식 중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모두 장님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보거나 들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분을 만지고 그 존재를 느껴봤어요. 전 그분을 ‘티’(티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빛을 보았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물(세례)을 통해 빛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미셸을 떠나며 사하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긴다. “난 이제 떠나 미셸. 너에게 지팡이 만큼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게 있어, 그건 어둠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삼키려 해도 항상 빛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야. 희망으로 가득 찬 네 걸음은 날 살아있게 한단다. 미셸.”

주님도 잠시 우리를 떠나셨다. 하지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 다시 찾아 오셨다. 어떤 어둠에서도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매순간 말쑤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그 어둠을 걷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블랙’(어둠)을 절망이나 좌절이 아닌 ‘희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빛 되신 그분만 함께 하신다면 말이다. 영화 속 미셸이 그러했듯이.
(드라마 | 인도 | 블랙 | 124분 | 전체관람가 | 2005)

후원자 명단

(2012년 1월 19일 ~ 2월 2일, 가나다순)

△개인

- 김종찬 김학희 민용기 박경희 배용구 신종섭 유득현 윤석주 이명직/오진영 이영미 임재아 정영훈 주유순 지병용 홍승표

△교회 및 단체

- 나무와씨앗교회 서울제일교회 성도교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복음기도모임 순회선교단복음사관학교 열매감리교회 예수전도단출판부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승이(복음기도신문)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Y.S